

개성공단 진출 지역업체 불안·초조

담양 부천공업·완도 흥의산업·여수 보양산업

천안함 사건 발표 후 北 태도 촉각

20일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확정 발표하자, 개성공단에 진출한 지역 업체들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진출한 지역 업체는 담양의 부천공업과 완도 흥의산업, 여수 보양산업 등 3곳이다.

전자·자동차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담양의 부천공업은 지난 2005년 8월 개성에 부천공업(주) 설립, 지난해 매출액 40억156만원 당기순이 15억7018만원을 내는 등 개성공단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부천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부로부터 특별하게 통보받은 것이 없어 뭐라 대답할 말이 없다”며

서도 “직원들의 신변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미역 등 수산물 가공업체인 흥의산업 종종가는 사장은 “우리는 되지만 아직까지 영향은 없다. 기업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산물 가공업체인 여수 보양산업의 강동호 상무는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에 진출, 부지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부지를 매입해 공장 건립 등을 추진하다가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내부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며

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 배해동(태성산업 회장) 회장은 “남북관계가 악화돼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큰 동요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하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경협기업들은 어떠한 정치적 희생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 기업 활동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4대강사업 반대’ … 도보 순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시민단체인 영산강지키기 광주 전남시민행동은 20일 영산강순례단을 구성하고 ‘4대강사업 반대, 생명수호’라는 슬로건으로 영산강 순례에 들어갔다. 이들은 영산강 발원지인 담양에서부터 영산강 하구까지 10일간 영산강을 걸으며 ‘4대강 사업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담양=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자전거도 고유번호판 부여

전국 1만500대 등록 추진… 관리 강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된 자전거 등록·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표준화된 자전거 등록 기준이 없어 자전거 등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국민이 편하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는 통일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통합 등록시스템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는 통합된 등록 시스템이 없어 전국 800만여대의 자전거 중 1만500대만 등록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자전거 몸체에 등록번호를 음각하거나 RFID(전자태그) 칩이 내장된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된 자전거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이 정보를 경찰청 차량관리시스템 등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장례 위로금 2000만원 지급”

“대학생 자녀에 장학금 준다”

전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 선거 이색 공약

‘고급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구입, 장례 위로금 1인당 최고 2000만원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공약이 아니다. 최근 전남도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이 직원을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공약들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제 6기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선거’에 모두

4명이 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후보마다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염행근(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본부) 후보는 직원들의 직계 존비속 장례에 대해 1인당 최고 2000만원의 장례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석호(해양바이오연구원) 후보는 고급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가 지난치에 날아온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직원들이 선호하는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석호(경희대학교) 후보는 여직원들의 육아 휴직이 의무적인 결원 충원을 내걸었고,

이용진(여성가족과) 후보는 100명이 넘는 계약직과 별정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확장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직원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전남도 한 직원은 “실현 가능성은 떠나, 상당수 공약이 직원들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것들”이라며 “듣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 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철기자 dok2000@kwangju.co.kr

6·25 전쟁 이후 증거세를 보여왔던 한국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은 -0.02%로 1950년대 이후 줄곧 늘어왔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マイ너스 인구증가’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1970년 2.21%에 달했던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 해 왔으며 올해의 경우 0.26%로 이런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이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다시

떨어져 2015년엔 0.1%로 ‘저로’ 수준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이 열리고 이와 같은 토론풍토를 거쳐 정책을 채택하거나 걸려내는 합의를 하게 된다”면서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도 선관위는 또 “4대강과 무상급식 실시 여부는 선거시기가 임박해 정치적·정점화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열하게 친반논의가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선거 쟁점으로 규정해 찬반에 대한 논의 및 의견개진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및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의 역할과 조화되 되는 조치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에 접근한 뒤 결국 2020년엔 인구가 0.02% 감소하는 상황에 이르고 ▲2025년 -0.12% ▲2030년 -0.25% 등으로 감소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OECD의 예상이다.

특히 2020년이 되면 주요20개국(G20) 국가들 중 러시아(-0.62%),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 한국(-0.02%) 등 5개국만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이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25% 까지 떨어져 일본(-0.73%), 러시아(-0.68%), 독일(-0.28%)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다./연합뉴스

인구, 2020년부터 감소세로

OECD, 인구 증가율 -0.02% 전망

6·25 전쟁 이후 증거세를 보여왔던

한국인구가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은 -0.02%로 1950년대 이후 줄곧 늘어왔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マイ너스 인구증가’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 1970년 2.21%에 달했던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해 왔으며 올해의 경우 0.26%로 이런 추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이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다시

떨어져 2015년엔 0.1%로 ‘저로’ 수준

온·오프라인 만능

- 김종우

화재를 방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는 통합된 등록 시스템이 없어 전국 800만여대의 자전거 중 1만500대만 등록될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자전거 몸체에 등록번호를 음각하거나 RFID(전자태그) 칩이 내장된 번호판을 부착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된 자전거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이 정보를 경찰청 차량관리시스템 등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치러지는 ‘제 6기 전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선거’에 모두 4명이 위원장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후보마다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염행근(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본부) 후보는 직원들의 직계 존비속 장례에 대해 1인당 최고 2000만원의 장례위로금을 내놓고 직원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석호(해양바이오연구원) 후보는 고급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가 지난치에 날아온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 직원들이 선호하는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다시

떨어져 2015년엔 0.1%로 ‘저로’ 수준

함평 다이너스티 C·C 사원 모집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친환경 양자간디 골프장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에서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모집요강

모집부분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코스관리	남 0명	글식기운전 및 기타	경력, 신입
식음료팀	남 여 0명	웨이터, 웨이주네스,	경력, 신입
시설팀	남 0명	전기	전기산업기사이상

2. 채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통
- 복지제도
- 기숙사 제공 / 1일3식 제공 / 4대보험
- 년차휴가 / 주 1회 휴무제공
- 하게 및 동계휴가 / 교통비지원등 기타

4.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성리 31-18번지 경영지원팀
- 팩스 접수 : 061-320-2710
- Email 접수 : mame@wang@hanmail.net
- 문의 전화 : 061-320-2717 (영화남)

(주)광주일보사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믿음 공인중개사 T. 971-4911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동이 빌딩 1층)

■첨단지구

상가 면적 : 60m 대로변 2,3층 450평(분할가능)

【권장업종 : 병원, 사무실, 학원 기타】

첨단지역 번화가이며 1층에 웃매장을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병원, 학원, 사무실용도로 적합함

450평(조립,제조 회사 가능) 시설 권리비 없음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디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일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복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 있음)

■첨단지역 : 토지, 모텔부지, 상가 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디수보유)

■첨단지역 :

상가임대, 음식점, 음악홀, 레스토랑(디수보유)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당 공인중개사

010-622-5659, 011-782-6266 T.222-4994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경쟁 이하

•방화건물, 상지구 주중심지, 대지 1010m²(305평) 건평 156m²(45평) 경기자 2기 38 폐도 16평

•동구 6차선도로 3차선 도로 코너 대지 1948m²(589평) 건평 2198m²(659평) 경기자 2기 37 폐도 16평